

##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전정진\*

### 서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금 송아지 일화는 오경에 두 번, 즉 출애굽기 32-34장과 신명기 9-10장에 나타난다. 이 두 기사를 비교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신명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신명기에 추가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이 두 기사들(versions) 사이에 모순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 기사 사이의 차이점들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벨하우젠(Wellhausen) 이래 이 차이점들은 대체로 역사 비평학적으로 즉, 자료 비평, 편집 비평, 그리고 전승 비평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졌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두 개 이상의 자료에 다양한 후대의 첨가 부분 또는 편집층들이 가해진 것으로 보았다.

벨하우젠(1885)에서<sup>1)</sup> 노트(Noth, 1948)에 이르기까지<sup>2)</sup> 출애굽기 32장은 오경의 가장 오래된 자료들에 후대의 신명기주의적 편집과

---

\*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약학

1)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2nd ed. (Atlanta: Scholars Press, 1994; org. ed. 1885).

2) 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삽입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와 후대의 편집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자료 비평가들은 신명기 전체를 창세기-민수기보다 후대의 산물로 보며, 신명기가 창세기-민수기에 나타나는 J와 E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황금 송아지 사건에 관하여도 표준 문학 비평은 동일한 가정을 한다. 즉, 신명기에 나타나는 내러티브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J, E 내러티브에 의존한다고 간주한다.<sup>3)</sup>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편집 단계와 이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제안들 때문에 단순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기사(또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기사)가 더 오래된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sup>4)</sup>

1970년대에 발전된 새로운 문학 비평적 접근 방법은 흔히 여러 자료들과 편집층의 흔적으로, 매끈하지 않다고 간주되던 본문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이 접근 방법을 출애굽기 32-34장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에 적용하였다.<sup>5)</sup> 이들 연구들 가운데 모벌리(Moberly)의 연구가 가장 철저하며 뛰어나다.

3) 이것은, 예를 들면, S. R. Driver의 1902년 주석에 나타난다. S. R. Driver,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02), 112.

4) 이와 같은 역사 비평학적 방법들이 갖는 공헌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종 형태의 본문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5) D. R. Davis, "Rebellion, Presence, and Covenant: A Study in Exodus 32-34," *WTJ* 44 (1982), 71-87; H. C. Brichto,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 Literary Analysis of a Fable on Idolatry," *HUCA* 54 (1983), 1-44; R. W. L. Moberly,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JSOT Press, 1983); E. G. Newing, "Up and Down-In and Out: Moses on Mount Sinai: The Literary Unity of Exodus 32-34," *ABR* 41 (1993), 18-34.

우리는 공시적 분석이 본문의 복잡한 편집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 현재 형태의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다. “필요 이상의 실체(entities)를 증가시키지 말라.”는 오컴(Ockham)의 면도날에 의하면, 모벌리의 공시적 접근 방법이 우리가 채택해야 할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보다 결정적이고 유익한 해석 방법은 통시적 접근 방법들보다는 본문에 대한 공시적 접근 방법이 우선권을 갖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벌리는 신명기는 다루지 않았다. 우리는 최종 형태의 신명기 9-10장을 공시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이 두 기사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의 결론에서 이 차이점들(추가 부분, 빠진 부분, 그리고 다른 변경 부분들)이 이 접근 방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과연 어떤 접근 방법이 현재 형태의 본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구약 학도에게 어떤 방법이 본문을 접근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두 기사의 최종 형태의 본문을 진지하게 다루며 이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흔히 파괴적이고 사색적인 역사 비평의 방법에 동조하지 아니하면서, 왜 이 두 기사가 다르게 기술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이 과연 이 차이점들(추가 부분, 빠진 부분과 그 밖의 다양한 변경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시적 접근 방법이 과연 현재 형태의 본문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 두 기사에 대한 역사 비평학자들의 몇몇 연구 결과를 조사한 다음, 장르 연구가 이 연구에 기여한 바를 살펴볼 것이다.<sup>6)</sup>

---

6) 필자의 학위 논문의 마지막 장은 이 두 기사의 신학적 메시지(theological *Tendenz*)를 논의하였다. J. Chun, “Reading the Golden Calf Episode in Theo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Ph. D. Dissertation (Bristol:

## 1.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황금 송아지 일화의 비교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몇 단락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비평학자들의 전형적인 설명을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sup>7)</sup>

### 1.1. 출애굽기 24:13-14

13)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3절의 모세와 함께 산 중간까지 올라가는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과, 14절의 장로들에게 지시하는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기사에서 모두 빠져 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무 의견의 일치도 없이 이것을 자료의 차이, 후대의 첨가 또는 편집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이것은 내러티브 장치(narrative devices)의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큰 시내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이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출애굽기 24:13-14 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아론이 언급된 모든 구절은 신명기에 빠져 있다.<sup>8)</sup>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이야기의 전개

---

University of Bristol, 2000).

7) 우리는 출애굽기 24:12-18을 비교 연구에 포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단락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적절한 서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8) 하지만 신명기는 아론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와 출애굽기 24-40장의 구조에서 여호수아, 장로들과 아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여호수아의 출현은 이어서 일어나는 출애굽기 32-34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32:17-18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것과 출애굽기 33:11의 회막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을 이해하게 한다. 출애굽기 24:13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 기사가 없었다면 청중과 독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관심은 사건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즉,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 야웨의 분노, 이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등장은 다만 신명기의 초점을 혼란케 할 뿐이다.

출애굽기 24:15-18

신명기 9:9

<p>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칠 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p>	<p>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p>
--	---

출애굽기는 모세가 산에 오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언급한다. 반면에 신명기는 모세가 산에 오르는 장면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sup>9)</sup> 또 출애굽기 24:15-18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름/불

9) “오르다”(אָרָב)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4:12-18에 4번 나타나는 반면 신명기

로 묘사하는 반면, 신명기는 이 시점에서 신의 현현을 묘사하지 않는다.

출애굽기는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서서히 진행하고 적지 않은 분량을 하나님의 현현의 준비와 현현의 장면에 할애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출애굽기의 관심을 잘 나타낸다.<sup>10)</sup>

구름/불의 신의 현현 묘사는 또한 출애굽기 내에 문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4:15-18에 나타나는 “구름”(ענן)과 “영광”(כבוד) 신의 현현과 40:34-38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기사가 수미쌍관(inclusio)을 이룬다. 이 두 하나님의 현현 기사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지침(출 25-31장), 황금 송아지 사건(출 32-34장), 성막의 건설(출 35-40장)을 감싸고 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현현을 생략한 것을 역사 비평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신의 현현이 후대의 P가 첨가한 것이며 신명기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평행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나 구절을 후대의 것으로 돌리는 경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sup>11)</sup> 본문의 최종 형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러한 종류의 접근 방법

---

9:9에는 단 한번 나타난다.

- 10) Westermann이 관찰한 것처럼 이 영광의 광경은 “야웨가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중재자 모세를 통해 말하고 주는 모든 것이” 진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C. Westermann, “Die Herrlichkeit Gottes in der Priesterschrift,” J. J. Stamm, E. Jenni and H. J. Stoebe, eds., *Word-Gebot-Glaube: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Walther Eichrodt zum 80. Geburtstag* (Zürich: Zwingli Verlag, 1970), 227-249.
- 11) 예를 들면 S. Lehming은 출애굽기 32장에서 12개의 상이한 편집층을 발견한다. Sigo Lehming, “Versuch zu Ex. XXXII,” *VT* 10 (1960), 16-50을 보라.

은 신명기의 생략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sup>12)</sup>

비록 신명기가 설교 서두에 구름/불의 신의 현현을 언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9:15에서 백성들의 배교 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도 불의 신의 현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으로 보아 모세(혹은 신명기의 저자)가 신의 현현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신 9:15).

신명기에서 모세는 불타는 산을 언급하여 백성들의 참을성 없음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적어도 산이 불타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 안달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야웨에 대하여 반역을 하였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현현을 모세의 설교 서두에 언급하지 않고, 백성들의 배교를 언급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배치시켜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 1.2. 출애굽기 25:1-31:17

예배의 매개 수단과 성막에 관한 지침(출 25:1-31:17)은 신명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료 비평가들은 이 자료를 P가 후대에 삽입했기 때문에 신명기가 P자료를 몰랐다고 가정하여 이 부분이 신명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sup>13)</sup> 그러나 신명기 10:1에서

12) 신명기가 출애굽기 24장에 묘사된 구름/불의 신의 현현을 기록하지는 않으나, 신명기는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은 후 9:10에서 백성/독자에게 일찍이 출애굽기 19-20장에 나타났던 불의 신의 현현을 상기시킨다:

וַיִּזְכֹּר יְהוָה אֶת־עֲוֹנוֹתָם כִּי־אָמְרוּ לְמֹשֶׁה אֱלֹהֵינוּ יֵצֵאֵנוּ מִיְהוָה כִּי־אָמְרוּ לְמֹשֶׁה אֱלֹהֵינוּ יֵצֵאֵנוּ מִיְהוָה “야웨께서 집회의 날에 불 가운데서 산에서”(신 9:10).

13) J. Hahn, *Das “Goldene Kalb” Die Jahwe-Verehrung bei Stierbildern in*

언약궤를 만들라는 야웨의 명령은 신명기의 저자가 P자료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10:1-2, 5의 언약궤 이야기를 최종 신명기주의적 편집자가 후대에 삽입했거나 10:1에 언급된 궤가 출애굽기 25:10 이하에서 소개된 속죄소와는 다른 원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그들의 입장을 방어한다.<sup>14)</sup>

하지만 문학적 전략과 더 넓은 문맥에서의 단락들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출 25-31장)과 이 지침의 시행(출 35-40장)은 황금 송아지 내러티브(출 32-34장)를 감싸는 큰 교차 대구(chiastic structure)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중앙에 나타난다. 황금 송아지 내러티브는 출애굽기 24:12-40:38의 거대한 문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출애굽기 24:12-40:38은 의도적인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출애굽기 24:12-18의 구름과 불의 신현의 모티브가 성막 지침에 앞서 나타나며, 이 지침의 성취는 출애굽기 40:34-38의 또 다른 구름과 불의 신의 현현의 모티브로 결론 내린다. 안식의 단락은 지침 부분의 마지막과(출 31:12-17) 실행 부분의 시작(출 35:1-3)에 나타난다. 더욱이, 지침의 기본 순서와 실행의 기본 순서는 역시 교차 대구 구조이다. 그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황금 송아지 사건 후에 성막의 건립 기사를 “그들이 야웨의 명령한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한두 줄로 요약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차 구조의 중앙에 황금 송아지 이야기(F)가 자리 잡도록 성막 제조의 긴 이야기(E'-A')를 반복하였다.

출애굽기 24:12-40:38을 의도적으로 교차 구조로 만든 이유는 비

---

*Geschichte Israels* (Frankfurt/Main; Berlin; New York; Paris: Peter Lang, 1987), 236f.

14) W. Johnstone, *Exod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77.

극적인 황금 송아지 배교 사건 후에도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야웨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웨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출 25:8)은 이제 황금 송아지의 배교 사건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황금 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4:12-40:38의 거대한 교차 구조(chiastic)는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갱신의 징표의 역할을 한다.

### 1.3. 출애굽기 32:1-6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 <그림 1>

- A. 구름/불의 신현 (24:15-18)
- B. 궤, 상, 촛대 (25:10-40)
- C. 성막 (26:1-37)
- D. 브살렐과 오홀리압 (31:1-11)
- E. 안식일 (31:12-17)
- F. 황금 송아지 사건 (31:18-34:35)
- E'. 안식일 (35:1-3)
- D'. 브사렐, 오홀리압과 다른 장인(匠人)들 (35:10-36:7)
- C'. 성막 (36:8-38)
- B'. 궤, 상, 촛대 (37:1-24)
- A'. 구름/불 신의 현현 (40:34-38)

배교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출애굽기에만 나타나고 신명기에는 생략되어 있다. 때때로 출애굽기 32:1-6은 문맥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나 차일즈(B. S. Childs)는 출애굽기 32:1-6과 이어서 따라오는 절들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한다.<sup>15)</sup> 뿐만 아니라, 32:1-6에 묘사된 백성들의 배교는 24장에 나타나는 언약 체결의식의 기사와 놀라울 정도로 대조를 이룬다. 이 현저한 대조는 이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וַיָּקִימוּ) 단을 쌓고(וַיִּבֶן מִזְבֵּחַ), 백성들은 번제(וַיַּעֲלוּ עֹלֹת)와 화목제(וַיִּזְבְּחוּ זְבָחִים שְׁלָמִים)를 야웨께 드린다. 한편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도 단을 쌓고,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동일한 제사를 드린다(출 24:4-5와 32:5-6a를 비교해 보라).<sup>16)</sup>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은 야웨 앞에서 먹고 마시는(וַיֵּאָכְלוּ וַיִּשְׁתּוּ) 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들은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신다(24:11과 32:6b 비교). 아래의 표는 언약을 체결하는 출애굽기 24장과 언약을 깨뜨리는 32:1-6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2장

4절 וַיִּשְׁכֶּם בְּבֹקֶר 4절 וַיִּבֶן מִזְבֵּחַ תַּחַת הָהָר 5절 וַיַּעֲלוּ עֹלֹת וַיִּזְבְּחוּ זְבָחִים שְׁלָמִים לַיהוָה פָּרִים 11절 וַיֵּאָכְלוּ וַיִּשְׁתּוּ	6절 וַיִּשְׁכִּימוּ מִמִּזְבֵּחַת 5절 וַיִּבֶן מִזְבֵּחַ לְפָנָיו 6절 וַיַּעֲלוּ עֹלֹת וַיִּנְשְׂאוּ שְׁלָמִים 6절 לֶאֱכֹל וּשְׁתּוּ וַיִּקְמוּ לְצַחֵק
---	--

야웨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백성들의 두 번의 약속(출

15) B. S. Childs, *Exodus* (London: SCM Press, 1974), 558-559.

16) D. W. Waring, "The Nature of Yahweh'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A Literary Analysis of Exodus 32-34," Ph.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5), 74.

24:3, 7)은 명백히 합법적 예배(출 24장)와 비합법적 예배(출 32장)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며,<sup>17)</sup> 이것은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출애굽기 24장과 32:1-6 사이에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32:1-6을 후대의 첨가물로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신명기의 저자가 이 자료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명기 9:12이 출애굽기 32:7-8a에 나타나는 야웨의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신명기 저자가 출애굽기 32:1-6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32:1-6이 생략된 이유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한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는 3인칭 화자(話者, narrator)의 관점에서 전개되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인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는 항상 화자의 관점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장면(scene)이 바뀐다. 예를 들면, 산 아래의 백성들로부터 산꼭대기의 모세에게로, 그리고 다시 산 아래의 백성들에게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장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세는 그의 설교 내내 과거 사건들을 순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출애굽기의 전지(全知)한 화자(omniscient narrator)와는 달리, 모세는 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는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다.<sup>18)</sup> 따라서 신명기에 출애굽기 32:1-6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신명기가 이 사건을 몰랐기 때문이라

17) D. E. Warring, "The Nature of Yahweh'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A Literary Analysis of Exodus 32-34," 74;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54.

18) Cf. J. Hahn, *Das "Goldene Kalb" Die Jahwe-Verehrung bei Stierbildern in Geschichte Israels*, 238.

고 돌릴 필요는 없다.

1.4. 출애굽기 32:7; 신명기 9:12a와 출애굽기 32:9-10; 신명기 9:13-14

<p>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p> <p>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내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p>	<p>12)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p> <p>13)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 나를 막지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루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p>
<p>출 32:7 יהוה אל־מוֹשֶׁה וַיֹּדְבַר יְהוָה אֶל־מוֹשֶׁה</p> <p>출 32:9 וַיֹּאמֶר יְהוָה אֶל־מוֹשֶׁה</p>	<p>신 9:12 וַיֹּאמֶר יְהוָה אֵלַי</p> <p>신 9:13 וַיֹּאמֶר יְהוָה אֵלַי לֵאמֹר</p>

몇몇 학자들은 출애굽기 32:9와 신명기 9:13을 후대에 더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담화 소개 양식(introductory speech formula) וַיֹּאמֶר יְהוָה אֶל־מוֹשֶׁה/אֵלַי לֵאמֹר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출 32:7과 신 9:12을 보라).<sup>19)</sup> 이들은 각각의 본문에 두 개의 담화소개 양식이 사용되는 것은(즉, 출 32:7, 9에서 וַיֹּדְבַר יְהוָה와 וַיֹּאמֶר 그리고 신 9:12, 13에서 וַיֹּאמֶר가 사용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또

19) 보라, J. Hahn, *Das "Goldene Kalb" Die Jahwe-Verehrung bei Stierbildern in Geschichte Israels*, 239.

아우렐리우스(Aurelius)는 출애굽기 32:9와 32:7의 저자를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32:7은 **נִבְרָה**를 사용하여 담화 소개 하는 반면, 32:9는 **אָמַר**를 사용하여 담화 소개를 하며, 또 32:7에서는 야웨가 백성을 “네 백성”(עַמִּי)이라고 부르는 반면, 32:9에서는 “이 백성” (הָעָם הַזֶּה)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의 언어의 변화에 근거한 편집 층의 구별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반 시터스(Van Seters)도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연설이나 설교, 그리고 기도에서 단어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빈번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출 5:22-23; 32:33-34; 신 9:26-29 참조). 그러나 반 시터스의 설명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는 단순히 출애굽기 32:7-10이 J가 자료로 사용한 신명기 9:12-14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sup>20)</sup>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두 개의 담화 소개 양식은 각각 다른 측면에서 야웨의 담화를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야웨의 첫 번째 담화(출 32:7-8 신 9:12)에서 야웨는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반면, 두 번째 담화(출 32:9-10 신 9:13)에서 야웨는 야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한다.

각각의 경우 명령문 **וְיָדַבֵּר/וְיֹאמֶר**(출 32:7; 신 9:12)와 **וְיָדַבֵּר מִפִּי יְהוָה/וְיֹאמֶר מִפִּי יְהוָה**(출 32:10; 신 9:14)에 이어 그 명령의 이유가 뒤따라온다. 요약하면 야웨의 담화와 두 개의 담화 소개 형식은 편집에 의한 혼합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통합적(integral)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애굽기 32:19a

신명기 9:16

<p>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p>	<p>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 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p>
------------------------------------	--

20)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b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308, 311.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진에 도착하였을 때의 광경 묘사는 독자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문학적 효과를 준다. 하지만 신명기의 독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명기의 저자는 이미 출애굽기에 주어진 세부 사항을 상세히 반복하지 않는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춤”(נִחְמָה) 또한 신명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체적으로 출애굽기는 신명기보다 사건의 전개를 충분히 묘사한다. 여기서도 출애굽기는 모세가 진에 도착하였을 때의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다. 그러나 신명기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거의 생략하고, 그 대신 그 현장의 전반적인 평을 함으로 그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다<sup>21)</sup>.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출애굽기는 보다 서술적이고, 신명기는 보다 해석적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면, 두 기사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차이는 내용의 길이이다. 출애굽기에서 이 사건의 즉각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출애굽기 24:12-18과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합치면 모두 42절이며, 이어서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언약 갱신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신명기의 기사는 이보다 훨씬 짧다. 황금 송아지 사건을 다루는 신명기 9:8-29은 단지 22절에 불과하며, 이어서 언약 갱신이 10:1-11에 나타날 뿐이다.

비록 모든 이야기들(storytellings)이 그 자료를 다룸에 있어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일화의 내러티브가 신명기의 이야기보다 사건을 더 자세히 묘사한다. 신명기의 경우,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신명기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몇몇 주요 부분들이 빠져 있다.

21) 동일한 경향을 송아지를 파괴하는 기사(출 32:20과 신 9:21)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1) 성막에 관한 지침(출 25-31장)
- 2) 신/엘로힘(אֱלֹהִים)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출 32:1-6)
- 3)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출 32:17-18)
- 4) 모세의 아론과의 대면(출 32:21-24)
- 5) 레위인에 의해 실행된 심판(출 32:25-29)

이 두 책에서 이 일화의 배경(setting)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대단히 다르다. 출애굽기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중의 한 기사로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반면, 신명기는 동일한 일화를 권면조의 설교 스타일로 소개한다.<sup>22)</sup> 대체적으로 출애굽기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보다 서술적인 반면, 신명기는 보다 해석적이라 말할 수 있다. 신명기 저자는 그의 책의 목적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재배열하고,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거 사건들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설교자 모세(혹은 저자)가 자료를 선별하는 방식으로부터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지를 발견할 수 있다.<sup>23)</sup> 신명기

---

22) 신명기의 외부 틀 (신 1-11장과 27-34장) 뿐 아니라 이 책의 법적 부분(신 12-26장)도 설교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G. von Rad는 법적 부분을 “설교로 선포된 법”(preached law)으로 묘사한다. G. von Rad,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53), 15.

23) 신명기는 백성과 야웨를 명백히 대조시키고 있다. 신명기 9-10장의 강조점은 사건 그 자체의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행위자들, 즉, 비신실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야웨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에 나타나는 정탐꾼 사건과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정탐꾼 기사를 비교하면 명백하게 이점이 드러난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주도권을 잡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다. 하지만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낼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신명기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1:21-22에서 야웨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의 망설임을 명백하게 언급한다. J. G. Millar, “Living at the Place of Decision: Time and

에서 모세의 관심은 사건의 모든 세부 항목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문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즉, 모세는 이 사건으로부터 “그들(또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웨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노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치려고 한다.<sup>24)</sup> 각 책에서 이 이야기는 각각 다른 문학 형태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 책의 장르와 신학적 메시지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 2. 출애굽기 32-34장과 신명기 9-10장의 장르 비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화를 포함하는 두 내러티브의 문학 장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학 양식의 선택은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 문체, 어법, 때로는 작품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독자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필연적으로 저자가 그의 메시지를 보내는 매개물을 고려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독자는 저자가 의도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두 황금 송아지 일화의 문학 장르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연구에 필요 불가결하다.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일화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며, 이에 반해서 신

---

Place in the Framework of Deuteronomy,” J. G. McConville and J. G. Millar, *Time and Place in Deuteronom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6-28을 보라.

24) 이 사건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려는 것은 출애굽기 내러티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신명기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명기의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이끌어 낸다.

명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일화는 확장된 설교와 같은 연설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연구할 것이며, 이 연구는 우리에게 문학 장르의 관점에서 두 내러티브 사이의 차이점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르는 단순히 문학적 양식(types)을 분류하는 방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sup>25)</sup> 장르는 “본문과 독자 모두의 온전성(integrity)을 유지하는 동시에, 본문과 독자의 지평선을 융합시켜 주는” 해석학적인 장치이다.<sup>26)</sup> 본문을 읽는 초기 단계에 독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은 독자로 하여금 본문을 읽는 전략을 세워준다. 장르를 확인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수많은 다른 장르들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본문들은 독자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독자는 본문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그녀는 즉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르를 확인하게 되고, 이 장르에 대한 결정은 독자에게 특정의 기대를 갖게 한다. 바톤(Barton)에 의하면 “장르에 대한 최소한의 함축적인 인식 없이 어떤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7)</sup> 그는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문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느냐”하는 결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한다.<sup>28)</sup>

바톤은 독자의 장르에 대한 최초의 판단과 주석의 첫 번째 시도들은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면서 상호 수정을 한다.”고 지적한다.<sup>29)</sup> 히르쉬(Hirsch)에 의하면, 독자가 본문의 정확한 장르에 대한

25) M. Gerhart, “Generic Competence in Biblical Hermeneutics,” *Semeia* 43 (1988), 29-44.

26) G. R. Osborne, “Genre Criticism-Sensus Literalis,” *Trinity Journal* (1983), 24.

27) J. Barton, “Classifying Biblical Criticism,” *JSOT* 29 (1984), 16.

28) *Ibid.*, 5-6.

29) *Ibid.*, 18.

인식에 이르기 전까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미는 필연적으로 장르에 의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genre-bound) 히르쉬는 주장한다.<sup>30)</sup> 장르의 분별은 독서 전략을 결정할 뿐 아니라 본문의 해석을 좌우하게 한다. 장르의 선택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롱맨(Longman)이 지적한 것처럼,<sup>31)</sup> 본문 해석에 대한 많은 논쟁들은 실제로 본문의 장르의 분별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 2.1. 반역 이야기 장르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의 배교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다. 시내 산은 단순히 지리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서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광야 내러티브(출 15:22-18:27와 민 10:11-22:1)는 시내 내러티브(출 19:1-민 10:10)를 감싸고 있다.

“불평”(murmuring)의 모티브는 광야 방랑의 주요 주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시내 이전과 이후의 광야 내러티브 사이의 두드러진 상응점들(correspondences)을 지적하였다.<sup>32)</sup> 가장 두드러진 평행 기사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내러티브와 출애굽기 17:1-7과 민수기 20:1-13에서 반석으로부터의 물 내러티브가 짝을 이루며 나타나는 것이다.

30)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76.

31) T.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8), 21-23.

32)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 S. Childs, *Exodus*, 254-264; G. J. Wenham, *Number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16-17; D. T. Olson, *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61-63.

황금 송아지 사건은 두 광야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반역 이야기들과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반역 이야기에서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전형적인 반역 이야기들과 출애굽기 32-34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32-34장의 장르가 반역의 이야기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체적으로 반역 이야기는 다음의 패턴을 보여준다.<sup>33)</sup> 첫째, 백성들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 주위에 모인다. 둘째, 불평을 제기한다. 셋째, 야웨는 노하여 심판을 선언하거나 징벌을 내린다. 넷째, 백성들은 야웨의 진노에 반응하여 회개한다. 다섯째,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확보된다.

## 2.2. 반역 이야기로서의 출애굽기 32-34장

1) 출애굽기 32:1은 반역 이야기들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백성이 “아론에 대하여 모여”(עָלְאַהֲרֹן וְעַל־כָּל־בְּנֵי־יִשְׂרָאֵל). 동사  $\text{קָמָה}$ 의 니팔 와우 연속 미완료와 전치사  $\text{עַל}$ 은 일반적으로 불평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2)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을 제시한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조바심을 내며 아론에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신( $\text{אֱלֹהֵינוּ}$ )을 만들라고 요구한다(출 32:1).

3) 전형적인 반역 이야기에서 야웨는 노를 발하고, 이어 심판을 선언하거나 실행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야웨는 모세에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 32:10)고 선언한다.<sup>34)</sup>

33) T. E. Fretheim, *Exod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174.

34) 차일즈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패턴 1)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타나는 표현(패턴 2)이라고 한다.

황금 송아지 내러티브에는 여러 차례 야웨의 심판이 나타남으로 인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다른 반역 이야기들 사이의 차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처음에 야웨는 모세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전멸시킬 것을 선언한다(출 32:10). 그러나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야웨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에 의해 수행된다. 모세는 송아지를 부순 후(32:20), 레위인들을 사용하여 우상 숭배에 관여한 자들을 처형한다(32:25-29). 흥미롭게도 왈저(M. Walzer)는 “출애굽기 32장이 광야 내러티브에서 유일하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불, 재앙, 불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처벌하는 유일한 곳”임을 지적한다(참조, 민 11:1ff.; 16:41-49; 21:5f.).<sup>35)</sup>

야웨의 그 다음 심판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32:31-32) 후에 나타난다. 야웨는 족장에게 하였던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지만, 백성들 가운데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야웨가 이들 가운데의 친밀한 임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야웨의 심판임을 보여준다. 야웨의 명령에 의해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는 것은 야웨의 심판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33:4-6). 마치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탈취 당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야웨에 의해 단장품을 탈취 당한다(תנצל, 참조 출 3:22; 12:36).<sup>36)</sup>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게 맞보았던 승리까지 박탈 당하고 시내 산을 떠나야만 하였다. “승리로 이 산에 도착하였던 이

35) M. Walzer, “Exodus 32 and the Theory of Holy War: The History of a Citation,” *HTR* 61 (1968), 1-14, 2-3.

36) R. W. L. Moberly,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61.

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패배 가운데에서 떠나게 된다.”<sup>37)</sup>

4) 전형적인 반역 이야기에서 야웨의 심판이 선언되면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의 회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철회하시겠다는 선언을 듣자, 백성들은 슬퍼하며 그들의 단장품을 제하였다(33:4-6).

5) 모세는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여러 차례 기도한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묘사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פָּנַח*(출 15:25; 17:4; 민 12:13), *לְפָנַי*(민 11:2; 21:7b); *אָמַר*(민 11:11-15; 14:13-19; 16:22). 황금 송아지 이야기에서 동사 *הִלַּח*가 모세의 첫 번째 기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출 32:11a),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의 나머지 기도는 모두 *אָמַר*에 의해 소개되었다(출 32:11-13, 31-32; 33:12-23; 34:9).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11-13에 나타나며,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심판이 시행된 후(32:25-29)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타난다(32:25-29).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야웨와 대화의 형태로 나타난다(33:12-23).

6) 마지막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야웨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증거로 새로이 언약의 돌판을 수여한다. 그리고 나서 언약이 갱신된다(출 34장). 언약의 갱신에서 놀라운 점은 언약의 재수립이 이스라엘의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갱신되었다는 것이다(34:9).

비록 이 이야기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출애굽기-민수기에 나타나는 ‘반역 이야기’ 장르에 잘 부합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37) S. J. Hafemann,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95), 208.

### 2. 3. 신명기의 장르로서의 고별 설교

신명기는 전형적인 구약의 고별 설교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진다. 전형적으로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의 국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며, 설교자는 그의 청중들에게 미래에 특정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두드러진 예로는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수 23-24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삼상 12장), 다윗의 고별 설교(왕상 2:1-9)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또는 가족이나 족장의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 또는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였을 때, 그는 백성들 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소환하여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의 소유를 상속자들과 후계자에게 물려준다.<sup>38)</sup>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언급하거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며, 흔히 긴 역사를 회고함으로 조상들의 종교적 유산을 보존할 것을 당부한다.<sup>39)</sup>

설교는 항상 1인칭으로 말해지며 유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설교는 구약 역사의 핵심적인 갈림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명기, 즉 모세의 일련의 고별 설교는 40년 동안의 광야 방랑 후, 약속의 땅의 정복 직전에 주어졌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수 23-24장) 또한 정복의 완성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 사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주어졌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삼상 12:1-25) 역시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시작 사이에서 주어졌다.

38) B. O. Long, *1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44.

39) W. W. Klein, C. L. Blomberg and R. L.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London; Vancouver; Melbourne: Word Publishing, 1993), 270.

고별 설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구조로 구성된다.

- (1) 서론: 설교자가 청중들을 소환하여, 자신의 나이 많음 또는 육체 상태를 언급한다.
- (2) 역사적 회고: 설교자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여 개괄한다.
- (3) 훈계: 설교자는 미래에 관한 경고와 권면을 한다.
- (4) 결과 또는 백성들의 반응
- (5) 죽음의 기사

신명기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어떤 고별 설교보다 대규모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소개한다. 실제로 신명기는 거의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sup>40)</sup> 두 개의 담화만 제외하고 모세는 자신의 모든 담화를 혼자서 말한다.<sup>41)</sup>

#### 1) 서론(신 1:1-5)

신명기는 서두에서 즉각적으로 모세의 담화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하여졌음을 명백히 나타낸다(1:1). 비록 모세의 나이 많음과 그의 육체적 상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제 사십 년 십일월 그 달 초일일에”(1:3)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모세의 임박한 죽음을 예시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서두에 나타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신 1:3b)는 이 설교가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암시적으로

---

40) 신명기에서 화자(話者, narrator)의 설명은 단지 56절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모세의 담화 외에도, 야웨의 담화가 화자에 의해 5번 인용되었다(신 31:14b; 31:16b-21; 31:23b; 32:49-52; 34:4b).

41) 한 번은 신명기 27:1-8에서 장로들과 함께 말하며, 또 다른 하나는 27:9-10에서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말한다. R. Polzin, “Reporting Speech,” 200.

보여준다.

2) 역사적 회고(신 1:6-3:29)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의 방랑과 약속의 땅의 경계에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한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의 임명(1:6-18), 정탐꾼의 파송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1:19-46), 이스라엘의 여정과 여러 민족들과의 대면(2:1-3:11), 요단 동편의 땅 소유(3:12-29)

3) 훈계(신 4-28장)

야웨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며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마친다(신 4장).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계속해서 훈계가 이어진다(신 5-28장). 여기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가르친다.

4) 결과 또는 백성들의 반응(신 29-32장)

세 번째 설교(29-32장)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다(31:1-8, 14-23).

5) 죽음의 기사(신 34장)

모세의 임박한 죽음의 기사가 모세의 설교 전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나타난다(3:23-29; 31:2, 14; 33:1). 모세의 마지막 축복(33장)과 그의 죽음의 기사(34장)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설교를 결론 짓는다.

결론적으로, 조약 문서 또는 십계명의 강해와 같은 신명기 전체의 장르에 대한 제안들이 신명기의 중요한 단면들을 잘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중대한 역사적 상황의 순간에 주어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장르를 보다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신명기는 부패한 가나안 종교의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모세가 연속적으로 선포한 일련의 정감 있고 열정적인 고별 설교이다. 고대 근동의 정치적 조약 문서의 형태를 사용한 일련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장르를 적절히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4. 신명기 9-10장의 장르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기 32-34장과 신명기 9-10장이 같은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황금 송아지 사건의 두 기사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장르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차이들은 자료와 편집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졌다.<sup>42)</sup> 그러나 출애굽기 32-34장과 신명기 9-10장을 같은 범주의 장르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들 장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각 기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르의 선택이 그 작품에서 단어와 스타일에 대한 저자의 선택을 지배할 뿐 아니라, 자료들을 선별하고 배열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신명기 전체의 장르가 약속의 땅 문턱에 서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모세의 일련의 설교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명기 9-10장 전체의 장르는 이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명기 9-10장은 명확하게 두 번째 담화(신 5-28장)의 일부이다.

신명기 9-10장이 설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2인칭 명령에 이어 호격으로 시작하는 신명기 9:1에서 즉시 명백해 진다: **לָמָּה אֲנִי**

그러나 설교의 권면조(hortatory tone)는 기껏해야 신명기 9:8까지만 나타나고, 그 후 모세의 설교 어조는 역사적 회고(신 9:9-10:11)를 시작함과 동시에 변한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 9:9-10:11을 그 주변 문맥과 분리시켜 놓고 다른 역사적 내러티브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담화 양식(discourse type)의 관점에서 신명기 기사가 1인칭으로

42) 예를 들면, S. R. Driver, *Deuteronomy*, 111-124.

이야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사이에 어떠한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신명기 9-10장의 첫 부분은 권면 담화(hortatory discourse)인 반면, 두 번째 부분은 내러티브 담화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담화의 길이로 보면, 이 두 번째 양식이 신명기 9-10장의 거의 대부분의 담화를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9-10장의 두 번째 부분이 설교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명기 9:9-10:11의 장르는 과거 역사에서 취한 설교의 예화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신명기 9-10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또는 전통적인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뚜렷한 설교의 목적을 수행하는 독특한 장르로 볼 수 있다. 신명기 9-10장의 세부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권면의 설교(9:1-6)

- a) 땅의 정복 이전(9:1-3): 야웨께서는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 b) 땅의 정복 이후(9:4-6): 너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 때문에

2) 설교 예화(9:7-10:11)

- a) 서론(9:7-8)
- b) 백성들의 죄에 대한 예증(9:9-24)
- c) 야웨의 은혜에 대한 예증(9:25-10:11)

신명기 9:1-3에서 땅의 정복은 확실하고 임박한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정의(international justice)의 중재자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승리를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신명기 9:4-6에서 땅의 정복이 그들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야웨의 은혜와 선물이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킨다. 모세는 그들의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야웨께서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9:6). 도덕적 근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그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없다. 엄격히 말해서, 땅의 정복은 결코 그들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땅은 오직 야웨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그의 설교의 나머지 부분(9:7-10:11)에서 모세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목이 곧음을 예증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웨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신명기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땅을 정복한 후에 갖게 될지도 모르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자기 의’(self-righteousness)에 대한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다.<sup>43)</sup> 백성들은 야웨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9:8). 야웨의 진노와 백성들을 멸절하기(מִמָּוֶת) 위한 그의 의지가 신 9-10장에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sup>44)</sup> 동일한 단어 מִמָּוֶת가 9:3에서는 야웨가 가나안 민족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또한 7:23-24을 보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 죄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야웨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모세는 백성들이 야웨의 은혜를 인식하고 이 은혜로운 야웨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한다.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 신명기 9:7-8에서, 모세는 과거의 배역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날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야웨에 대항하여 반역했다.”(9:7b). 반역의 실례로서 호렙에서의 황금 송아지 일화를

43) D. T. Olson, *Numbers*, 52-58; C. J. H. Wright, *Deuteronomy*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and Paternoster Press, 1996), 133.

44) 신명기 9:8, 14, 18-20, 25, 26도 보라.

선택한 것은 특별히 의미심장하다. 호렘은 언약이 시작되었던 장소이었다. 그러나 야웨와의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백성들은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들을 어겼다(출 20:3-4를 보라). 언약은 백성들 자신의 의에 기초 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으며, 오직 야웨의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만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sup>45)</sup>

## 2. 5. 신명기의 과거 자료 사용 용법

현재 형태의 신명기는 약속의 땅의 문턱에 서있는 새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선포한 마지막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신 1:1-5; 4:14 등을 보라).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설교의 목적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광의적으로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 또는 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전통적인 역사적 내러티브와 설교 예화로 사용한 역사적 사건 사이에 차이에 대한 이해는 두 책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사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2.5.1. 생략

첫째, 설교 예화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초로 사용한 역사적 내러티브보다 더 짧다. 출애굽기 32-34장의 황금 송아지 기사가 신명기 9-10장의 기사보다 3배 정도 길다.<sup>46)</sup> 대체적으로 설교자들은

45) C. J. H. Wright, *Deuteronomy*, 135.

46) I. Wilson,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Divine Presence in Deuteronomy* (Atlanta: Scholars Press, 1995), 119.

그의 설교에서 역사적 사건 전체를 묘사하지는 않는다. 사건 전체를 길게 묘사하는 것은 설교의 메시지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예화는 이야기를 요약 양식으로 축약하는 경향이 있다. 설교 예화의 목적은 사건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요점을 밝게 하거나 청중들을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현상은 설교 예화에만 나타나는 독점적인 현상은 아니지만,<sup>47)</sup> 역사적 내러티브보다는 이 문학적 장르에서 보다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고별 연설의 장르에서 설교자들이 요약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미 역사적 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별 설교는 거의 항상 그 청중들이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sup>48)</sup> 따라서 모세는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일화의 완전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다만 그의 설교와 관련이 있는 특정의 부분들을 사용할 따름이다.

출애굽기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나 그것의 발전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출 32:1-6), 신명기는 이들 사건 중 그 어느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하지 않은 채 난데없이 야웨는 모세에게 산에서 속히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며,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모세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신명기는 백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묘사하지도 않고, 백성들의 배교에 대한 상세한 보고 조차하지 않는다(출 32:8b 참조). 신명기는 단지 의미 있는 짧

47)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사용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타나는 담화나 책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만 한다.

48) 전형적인 고별 설교의 역사적 회고 부분을 참조하라. 예를 들면, 수 23:3-4; 24:2-13; 삼상 12:6-13를 보라.

은 단어 “부어 만든 우상”(מַצֵּבֹת)만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출애굽기 32:1-6과 8b를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설교자는 사건을 묘사하는데 많은 공간을 소비하지 않고, 다만 그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함축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신명기의 침묵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노를 발하며 두 돌판을 깨는 것을 묘사한다(출 32:19). 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배교의 장면을 발견하였을 때 자신의 노를 언급하지 않으며(신 9:16-17; 참조 출 32:19b), 그가 발견한 광경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노가 생략된 것은 아마도 그가 두 돌판을 파괴할 때 보여주었던 그의 분노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야웨의 노를 대신 나타내었던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출애굽기에는 충분히 묘사되어 있는 사건들이 모세의 설교에서는 간단하게 암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전적으로 생략되었다. 출애굽기 32-34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호수아는 신명기 9-10장의 모세의 설교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송아지 파괴와 관련하여서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마지막 조치(마시는 주제)를 생략한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대면(출 32:21-24; 참조 신 9:20), 레위인의 심판 실행(출 32:25-29; 참조 신 10:8-9)도 모세의 설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명기는 또한 야웨가 백성들을 벌하는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출 32:35). 출애굽기 33장 전체는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서 병행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한 제한된 인도를 야웨가 선언하자 백성들이 애통하며 단장품을 제하는 기사(출 33:1-6), 회막의 기사(33:7-11),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33:12-23)는 신명

49) 그 대신 모세는 백성들과 아론에 대한 야웨의 노를 언급하는데, 아론에 대해 야웨가 노하셨다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한 야웨의 응답과 이와 관계된 야웨의 명령도 신명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야웨의 이름의 선포와 그것을 위한 준비(출 34:2-3, 5-9) 그리고, 그 결과, 즉 모세의 빛난 얼굴의 기사(34:29b-35)는 신명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언약 갱신의 과정 조차(출 34:10-27)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물론, 이 이야기들의 생략이나 축약에 대한 모든 이유들이 장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이 신명기의 설교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5.2. 첨가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설교 예화의 첫 번째 특징에 반대되는 것으로, 설교자는 과거 역사적 이야기를 축약할 뿐 아니라 원래 역사적 내러티브에 발견되지 않는 정보를 자유스럽게 첨가한다.<sup>50)</sup>

신명기 9-10장은 출애굽기의 내러티브에 비해 간결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는 출애굽기 32-34장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나타난다. 생략이 설교 예화의 지배적인 특징이므로, 평범하지 않은 첨가 요소들은 종종 설교자가 강조하기 원하는 요점을 드러낸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첨가 자료들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명기는 야웨가 아론에 대해 진노하였다는 사실과 모세가 아론을 위

---

50) 이 현상은 설교 예화에 사용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최종 형태를 진지하게 취한다면, 그리고, 신명기를 약속의 땅 문턱에서 백성들에게 행해진 설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의 목격자인 설교자 모세가 자신의 설교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첨가 요소들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해 기도하였음을 언급하지만(신 9:20), 이 기사는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론에 대한 야웨의 진노는 아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황금 송아지 사건 후,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첫 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야웨의 심판 아래 있었고, 멸망의 위험 아래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야웨의 진노로부터 아론이 벗어나게 되었음을 언급함으로 야웨의 은혜를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언급(신 9:18-19a)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의 기도(9:19b)에 대한 야웨의 호의적인 반응은 야웨의 자비와 은혜를 입증한다.

두 번째로,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의 기도의 자세와 40일 금식을 언급한다(신 9:18, 25).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의 기도의 자세한 내용 전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sup>51)</sup>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대화 형태로 나타나는 출애굽기와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신명기에서 생동감 있게 그의 기도의 상황과 기도 자세,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신 9:18-20).

51) 출애굽기는 다양한 경우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올렸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며, 각각 기도들의 내용은 대단히 자세히 이야기된다(출 32:11-14, 30-34; 33:12-23; 34:9). 비록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고 언급하지만(신 9:18-20), 그 기도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단지 한 번 나타난다(신 9:25-29). 그러나 신명기 9:25-29의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11-14에 있는 기도와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모세는 야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할(בְּיָדָיו) 이유도 없었으며, 40 주야동안 금식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그 자신을 동일시하였으며,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나누었다.<sup>52)</sup>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묘사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야웨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였다(וַיִּירָא). 모세의 기도 자세와 그의 정서적 상태의 묘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긴 기도를 인용하지 않고도 설교자의 마음을 강력히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광야 기간 발생하였던 다른 반역 사건들을 언급한다(신 9:22-24). 또 광야 여정과 아론의 죽음 기사를 언급한다(10:6-7). 그 어느 것도 출애굽기 32-34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자(9:22-24)는 백성들의 죄를 강조하는 반면, 반면에 후자(10:6-7)는 야웨의 은혜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속된 여행은 야웨가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들 첨가 요소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하였다는 것과 야웨의 은혜로움을 상기시키기 위한 설교자의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5.3. 비연대기화(Dischronologisation)

설교 예화의 세 번째 특징은 설교자가 본래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단축하거나 확장할 뿐 아니라, 사건들의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역사적 자료를 사용할 때 엄격하게 사건들의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내러티브가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엄격히 연대기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이 두 양식을 비교하여 보면,

52) 모세는 백성들과의 연대감을 출애굽기 32:32; 33:13, 15-16의 기도에서 명백히 진술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대체적으로 연대기적 순서로 정리되어있는 반면, 설교 예화는 그 자신의 논리를 갖는 다른 순서로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신명기 10장에 나타나는 궤의 기사에서 예증될 수 있다. 신명기 10:2-5절에서 궤를 만들고, 궤 안에 돌판들을 넣는 것은 출애굽기 32-34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궤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은 황금 송아지 사건 전에 모세가 산의 정상에 있을 때 출애굽기 25:10-16에서 주어졌다. 하지만 궤는 모세가 산에서 두 번째 돌판들을 가지고 내려온 후 브살렐에 의해 만들어졌다(출 37:1-5). 더욱이 모세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설립한 후에야 비로소 돌판들을 궤 안에 넣는다(40:20).

신명기에 나타나는 궤의 기사는 언뜻 보면 출애굽기 기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자료나 편집에 관점에서 이 차이점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비연대기적 기사는 설교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명기 궤의 기사에서 연대기적 순서의 명백한 파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주마등이 스쳐가듯 과거 40년을 뒤돌아본다. 여기서 모세는 야웨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궤를 만들라는 야웨의 명령, 궤의 만들기, 그리고 궤안에 돌판들을 두는 것을 한꺼번에 함께 제시한다(신 10:1-5). 그의 설교에서 모세는 연대적 순서의 압박에서 벗어나 사건들을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사건들의 연대 순서를 무시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 안에 돌판들을 둠으로 야웨와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궤의 기사가 신명기에 나타나는 유일한 비연대기적 예가 아니다. 모세의 기도에 관한 기사 또한 출애굽기에 제시된 기도의 순서와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는 야웨의 계시에 이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11-13에 즉시 따라온다. 신

명기에서 모세의 기도는 이 계시 후에 나타나지 않는다(신 9:12-14를 보라).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과 어휘가 매우 유사한 기도가 신명기 9:25-29에 나타난다. 이러한 배열은 설교자의 전략을 잘 드러낸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그의 설교 예화의 첫 부분에 모아서 언급한다. 일단 백성들의 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후, 모세는 야웨의 자비와 은혜를 입증하는 모든 요소들을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불성실함은 야웨의 성실함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세는 그의 설교 첫 부분에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두 번째 부분으로의 전환점에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한다.

비연대기화의 또 다른 예가 신명기 9:18-19, 20, 21에 나타난다. 여기 제시되는 사건들은 출애굽기 32:20, 21-24, 30-34에 나타난 사건들과는 역순으로 나타난다. 출애굽기에서 순서는 첫째, 송아지의 파괴, 둘째, 모세와 아론의 대면, 셋째,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순서이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첫 번째 나타나고, 그 후에 아론을 위한 그의 관심, 마지막으로 송아지의 파괴가 따라온다.<sup>53)</sup>

신명기 이야기의 결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여행을 계속하라.”는 야웨의 명령은 야웨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나타난다(10:11). 그러나 유사한 명령이 출애굽기에서는 언약 갱신 이전에 나타난다(출 32:34; 33:1). 부러(Boorer)는 이것을 신명기 기사가 “보다 응집력 있는 논증을 나타내기 위해 출애굽기 32-34장에 나타나는 순서를 재배열”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sup>54)</sup>

---

53) S. Boorer, *The Promise of the Land as Oath*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303.

54) *Ibid.*, 304.

#### 2.5.4. 반복

설교 예화의 마지막 특징은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인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특징의 표현들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표현으로 “사십주와 사십야”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 다섯 번 나타난다. 반면에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에는 단지 두 번 나타난다(24:18; 34:28). 출애굽기에서 이 표현은 돌판을 받는 것과 관련된 반면, 신명기에서 이 표현은 단 한번만 돌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신 9:9), 세 번은 명시적으로(신 9:18, 25; 10:10) 나머지 한번은 암시적으로(9:11) 모세의 기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언약을 맺고, 파괴하고, 갱신하는) 언약 비준의 과정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반면, 신명기 9-10장은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한 모세의 기도와 야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야웨의 은혜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5)</sup>

### 결론

요약하면, 신명기 9:8-10:11의 기사는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상당히 자유롭게 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설교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사용한다. 모세는 그의 요점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대

---

55) 비록 출애굽기 33장이 모세의 기도를 보고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분의 경우에 그는 이 일화를 요약된 형태로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그는 본래 기사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요소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 그는 사건의 순서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가 특별히 중요하게 느끼는 특정의 표현들은 되풀이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두 책 사이의 많은 차이들은 다른 자료나 복잡한 편집 역사에 기인하기보다는 그들의 장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문의 장르를 결정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가치 있는 작업이다.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 단지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일련의 ‘반역의 이야기’ 중 하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역 이야기’라는) 사실은 출애굽기 저자가 단지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장르 연구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반역자들에게 적실성이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장르의 연구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장르에 대한 연구는 그 본문이 메시지가 있는 내러티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다른 종류의 연구이다.<sup>56)</sup>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설교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임의로 신명기의 한 장이 선택되거나, 아니면 신명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읽지 않고 독자가 신명기의 단지 특정 부분을 읽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모세가 청중들에게 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잘못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목적은 청중에게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좋은 설교는 문제의식(agenda)을 제기한다. 이런 설교는 낙담한 자를 격려하고, 청중들의 시야를 일상의 삶으로부터 보다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게 하며,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격려하

---

56)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J. Chun, “Reading the Golden Calf Episode in Theo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183-243을 보라.

며, 특정의 행동을 삼가게 하며,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하게 함으로 청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신명기가 설교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게 되면, 독자들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장르 연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함을 알려주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았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 설교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는 두 기사의 차이점들에 대한 설명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롭고 아마 더 가치 있는 문제들, 즉, 본문을 연구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의 상대적인 장점 및 공헌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자료 비평의 입장에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에 주어진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는 방법보다 얼마나 유용하며 도움이 되는가? 장르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은 즉각적으로 ‘누가 이 본문의 독자인가?’라는 문제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위해 또는, 무슨 목적으로 본문을 읽는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학문적 성경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문적 성경 연구를 하여왔던 많은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학문 그 자체만을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학문적 성경 연구는 순수한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의 보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보다 광범위한 기독교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 <주요어>

황금 송아지, 문예적 접근, 역사 비평, 편집 비평, 장르

#### <Key Words>

golden calf, new-literary criticism, historical criticism, redaction criticism, genre

## 참고문헌

- Barton, J., "Classifying Biblical Criticism," *JSOT* 29 (1984), 19-35.
- Blum, E.,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 Boorer, S., *The Promise of the Land as Oath*,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 Brichto, H. C.,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 Literary Analysis of a Fable on Idolatry," *HUCA* 54 (1983), 1-44.
- Childs, B. S., *Exodus*, London: SCM Press, 1974.
- Chun, J. J., "Reading the Golden Calf Episode in Theo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2000.
- Davis, D. R., "Rebellion, Presence, and Covenant: A Study in Exodus 32-34," *WTJ* 44 (1982), 71-87.
- Driver, S. R.,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02.
- Fretheim, T. E., *Exod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 Gerhart, M., "Generic Competence in Biblical Hermeneutics," *Semeia* 43 (1988), 29-44.
- Hafemann, S. J.,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95.
- Hahn, J., *Das "Goldene Kalb" Die Jahwe-Verehrung bei Stierbildern in Geschichte Israels*, Frankfurt/Main; Berlin; New York; Paris: Peter Lang, 1987.
- Hirsch, E. D.,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 Johnstone, W., *Exod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Klein, W. W., Blomberg, C. L. and Hubbard, R. L.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London; Vancouver; Melbourne: Word Publishing, 1993.

- Lehming, Sigo, "Versuch zu Ex. XXXII," *VT* 10 (1960), 16-50.
- Long, B. O., *1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 Longman III, T., *How to Read the Psalm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8.
- McConville, J. G., and Millar, J. G., *Time and Place in Deuteronom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Moberly, R. W. L.,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JSOT Press, 1983.
- Newing, E. G., "Up and Down-In and Out: Moses on Mount Sinai: The Literary Unity of Exodus 32-34," *ABR* 41 (1993), 18-34.
-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 Olson, D. T., *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 Osborne, G. R., "Genre Criticism-Sensus Literalis," *Trinity Journal* (1983), 1-27.
- Polzin, R., "Reporting Speech in the Book of Deuteronomy: Toward a Compositional Analysis of the Deuteronomic History," B. Halpen and J. D. Levenson, eds.,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93-211.
- Rad, G. von.,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53.
- Van Seters, J.,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Walzer, M., "Exodus 32 and the Theory of Holy War: The History of a Citation," *HTR* 6 (1968), 1-14.
- Waring, D. W., "The Nature of Yahweh'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A Literary Analysis of Exodus 32-34," Ph.D.

-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5.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94; org. ed. 1885.
- Wenham, G. J., *Number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 Westermann, C., “Die Herrlichkeit Gottes in der Priesterschrift,” J. J. Stamm, E. Jenni and H. J. Stoebe, eds., *Word-Gebot-Glaube: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Walther Eichrodt zum 80. Geburtstag*, Zürich: Zwingli Verlag, 1970, 227-249.
- Wilson, I.,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Divine Presence in Deuteronomy*,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Wright, C. J. H., *Deuteronomy*,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and Paternoster Press, 1996.

<초록>

##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전정진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약학)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사건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두 기사 사이에 평행으로 나타나는 본문에 대한 세심한 비교에 이어 이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역사 비평학적 설명과 이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차이점들에 대한 공시적 설명이 제시된다. 이어 제시되는 이 두 기사에 대한 장르 분석은 이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들이 서로 다른 자료와 편집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러티브와 설교라는 두 본문의 장르의 차이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 이 연구는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 사이의 상대적 장점들을 고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성경 연구 방법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가져와야만 한다.

<Abstract>

## Comparison of the Golden Calf Episodes in Exodus and Deuteronomy

Prof. Jung J. Chun  
(Sungkyul Univ.)

In this study the writer asks why the account of the golden calf incident in Deuteronomy differs from the account in Exodus. After a detailed comparison of some selected parallel texts, historical-critical accounts of the differences are evaluated, and alternative synchronic explanations are explored. An examination of the genre of the two accounts follows, an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xts are largely the result of differences in genre (narrative/sermon) rather than different sources and redactional layers. This study also takes the opportunity to consider the relative merits of the various approaches. Biblical scholarship is not an end in itself, and any method of study needs to show that it is fruitful for the Christian community as a whole.